

대졸 청년구직자의 취업준비 경험에 대한 연구

공 수 연(인하대학교 박사과정) · 양 성 은(인하대학교 교수)

구직(求職)이란 일정한 직업을 찾음을 뜻한다. 직업이 개인 삶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Tolbert, 1974)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취업준비 경험은 청년구직자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대부분의 시간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인 것이다. 본 연구는 청년실업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실업에 대한 원인과 결과에 대한 규명보다는 청년구직자들을 둘러싼 개인, 가족, 지역사회, 국가의 체계에서 이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에 대한 과정에 주목하였다.

구체적으로, 청년구직자들의 취업준비 경험연구라는 목적에 부합되기 위해 동질적 표본 추출(homogeneous sampling)방법을 사용하여,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후 3년 동안 미취업 상태의 구직자들인 20대 미혼 남녀로 연구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총 30명이었으며, 자료수집은 개별심층면접(individual in-depth interview)과 취업준비관련 질문지를 부가적 자료로 수집하였다. 연구 참여에 대한 사전양해, 목적설명, 동의서 등 윤리규정을 따랐으며, 면접은 1회시 평균 1시간 3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되었고, 필요한 경우 2차 면접도 실시하였다. 각각의 면접은 녹음되었고, 모두 전사하였다. 분석은 최종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주제의 탐색과 분석을 위해 Ely, Anzul, Friedman, Garner, Steinmetz(1991)의 10단계 분석방법을 따랐다.

연구결과 본 연구에 참여한 청년구직자들은 구직시도와 실패의 순환적 과정을 경험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대졸 청년구직자들은 ‘자아탐색 부족’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대졸 청년구직자의 취업준비 경험의 핵심이었는데, 자신에 대한 정보 탐색보다는 스펙 갖추기에 몰두하고, 일상이 취업관련 공부가 되어버리면서, 이들의 취업준비 유형은 고착화 되어있었다. 또한, 합격을 해도 자발적 실업을 하는 참여자들의 반복적 태도를 포착할 수 있었는데, 이는 지속적인 구직활동으로 이어지게 하며 청년실업률을 증가시킨다. 결국, 청년 구직자들은 스펙을 갖추기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계속해서 구직을 시도하고, 실패하면서 일종의 “자발적인 휴직기”인 상태가 된다. 이들은 구직실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또 다시 구직을 준비하고, 경험하는 순환적 과정을 계속한다. 즉, 구직준비기, 구직경험기, 구직정체기가 맞물려 순환적으로 반복되면서 결국 청년실업이라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상으로, 본 연구는 질적연구방법을 통하여 당사자인 청년구직자들의 구직경험을 다각적으로 이해하고, 이러한 경험 속에서 이들이 재구성한 구직에 대한 개념, 어려움, 대처전략, 주요타자들과의 관계 변화 등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청년실업현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다. 이로써, 청년실업에 대한 정책적 대안의 근간을 마련하는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데 의의를 갖는다.